

갤러리 색즉시공



내소사에서

그 많던 단풍잎 사라지니
발 디딜 틈 없던 절 마당
연젠가 샅개 발길 없네

없는 듯 가뻛하던 날개
오늘은 밤중보다 무겁소
늦은 햇살 금쪽처럼 아쉬워
염불 한 줄 들었으면

금생을 절집에서 지냈으니
만 개의 눈도 이제 귀찮소
단풍까지만 보라 했으니
단풍까지만 보고 간다오

글·사진=박재완 기자

당신과 나 사이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Buddha in Comic & Ani

⑩ 신카이 마코토의 '초속 5cm'

지구의 중력에서 이탈하기 위해 우주 로켓은 초속 11km로 하늘을 질주한다. 풍경을 뚫고 지상을 달리는 KTX의 경우 3백km의 속도로 사람을 실어 나른다. 굉장히 빠른 속도도 벚꽃의 낙화 같이 천천히 흐르는 인상적인 순간이 있다. 이들을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에 둔 채 원경(遠景)에서 바라본다면 말이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마음이 가는 만큼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여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신에 감독 신카이 마코토는 이런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각화된 시간의 관념으로 표현해 냈다. 바로 2007년 극장 개봉작인 <초속 5cm>가 그의 작품이다. '영화초(벚꽃 무리)' '코스모나우트' '초속 5cm' 총 세 편의 오프닝 형식으로 이뤄진 이 작품은 한 소년과 소녀의 첫 사랑을 냉정할 정도로 중립적이면서 서정적으로 그려낸다. 너무 중립적이다 보니 즐거움도 간단하다.

1화인 '영화초'는 타카키와 아카리의 어린 첫사랑을 다룬다. 타카키와 아카리는 내성적인 성격과 좋아하는 것이 서로 같은 친구이자 연인이다. 하지만 벚꽃비가 내리는 봄날,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아카리가 전학을 가면서 그들은 아쉬움을 남긴 채 헤어진다. 편지만 주고받은 지 반년이 지나고, 더 먼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된 타카키는 아카리를 만나기 위해 기차에 몸을 싣고 그녀를 만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2화 '코스모나우트'에서는 타네가시마 섬에 이사 온 타카키와 그를 좋아하는 동급생 카나에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카나에는 등하교를 함께 하고 누구보다 가까이 지내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멀리 있음을 느낀다. 고백하려고 한 그녀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는다. 3화 '초속 5cm'에서는 이제 어른이 돼 버린 타카키가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이다.

빛의 연금술사·아날로그적 감수성 등 감독의 수식어는 신카이 마코토의 <초속 5cm>를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키워드다. 소녀적 감수성으로 충만한 그의 작품 세계는 특별한 사건이나 굴곡이 없다. 소위 말해 서사라고 할 만한 요소가 그의 작품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프닝 애니메이션 <초속 5cm>는 신카이 감독의 전작 <별의 목소리>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 등과 마찬가지로 어긋나는 사랑에 아파하고 견뎌내는 성장통의 또 다른 버전이자 오메가이다. 전작과 달리 SF요소를 배제한 것도 인간의 관계를 중립적이며 객관적으로 성찰하려 한 감독의 의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

실제 <초속 5cm>는 인생사가 설명이 불가능한 것처럼 인물이 정확히 어디로 떠나는

지, 그들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비중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전차의 창문 위로 흘러가는 풍경이나 봄날 햇살 무리와 겨울 눈꽃의 이미지를 대칭시키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통하는 마음의 속도와 시간·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상층의 이미지를 통해 감독은 보는 이로 하여금 사람과 사람사이의 속도를 느끼게 해준다. 실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살아야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작품의 부제도 이를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나고 있다"고 독백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기다려 본 사람은 안다. 만나러 가는 1분이 조마조마하면서도 길게 느껴진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몸의 속도가 마음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을.

속도는 결국 시간과 직결된다. 단순히 사랑이라는 인연은 피고 지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 아니라 '일념즉무량겁(一念卽無量劫)'인 것이다.

불교사상을 도식화해서 보면 인생의 고달픔(四苦)을 깨닫고, 그 고달픔의 번뇌 끝



<초속 5cm>의 한 장면. 사람과의 관계를 속도로 성찰해 냈다. 감독은 상층의 이미지를 통해 감독은 보는 이로 하여금 사람과 사람사이의 속도를 느끼게 해준다.

사람 사이의 관계·거리로 '속도'의 개념으로 성찰해 사랑은 곧 '일념즉무량겁'

또한, <초속 5cm>에서 보여지는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인 '초속 5cm'와 우주선이 발사장으로 가는 '시속 5km'·타카키의 헤어진 여자친구 문자에 쓰여진 '당신과의 거리 1cm'라는 독백은 사람의 마음이 가지는 속도에 대한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요소이다.

아직 어렸을 적의 타카키와 아카리는 초속 5cm라는 속도로 서로를 바라보며, 언제까지나 같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1편 에피소드 말미 떨어진 타카키와 아카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초속 5cm는 빠르면서도 느린 속도다. 유일하게 서사가 존재하는 1편의 주된 플롯은 소년이 소녀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폭설이 내려 멈춰진 전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소녀를 생각하며 "악의적인 시간이 나를 지

어 삶이 공(空)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하여 세상만물에 대해 애뜻한 마음(慈悲心)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시 겨울이 지나 벚꽃이 만개한 봄 그녀와 놀던 전차길에서 다시 그녀와 스쳐지나간다. 타카키는 지나가는 전차들을 보며 서 있다. 웬지 그녀도 돌아 봐 줄 것 같기 때문이다. 그전에도 그랬듯이.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떠나고 없다.

그녀와 자신과의 시간은 지나간 전차처럼 빠르게, 멀리 흘러갔기 때문이다. 타카키는 미소를 보이며 길을 걸어간다. 이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애뜻한 마음이 되살아났음을 의미한다. 훗날리는 벚꽃사이로 모든 추억과 감정들이 녹아든다.

흔히 '이뤄지지 않는 사랑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반문을 하게 된다. 사라지고만 것은 본디 없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흘러 모든 것이 추억이 되는 날은 반드시 온다. 그 시간 안에는 '내'가 있고, '네'가 존재한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인연은 가슴 뛰는 기적 같은 나날과 달콤한 아픔이 함께 영원히 빙글빙글 돌아가는 끝이 없는 관람차가 아닐까. 우리는 평생 사랑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68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6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중 26권 출간! 고산, 조산, 남원, 동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 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집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하여 변재에 자유자재 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변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대원선사 토기별>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음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주**

전용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주**

“삼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통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통 운반차를 안내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통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됩니다.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사전에 운전만을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자브레이크 장치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하차 시 유용합니다.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반 배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중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경단로 82-6(경단동 837-160번지) www.kw-tec.co.kr